

Issue Comment

2018. 1. 18

통신서비스

LG 유플러스, CJ 헬로 인수 추진설



통신/미디어

Analyst 정지수
02. 6098-6681
jisoo.jeong@meritz.co.kr

거래소, LG유플러스와 CJ헬로 양사에 인수 검토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

17일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양사에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18일 정오까지 요구. 양측 모두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는 조회 공시 이전까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

CJ오쇼핑-CJ E&M 합병 추진으로 다시 주목 받는 CJ헬로 매각설

CJ헬로에 대한 LG유플러스 인수 추진설은 같은 날 앞서 발표된 CJ오쇼핑과 CJ E&M의 합병 발표 이후 크게 부각. 한편,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은 CJ E&M과의 합병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CJ헬로 거취를 묻는 질문에 '합병이나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, 매각 작업으로 CJ헬로의 경영활동이 지연된 만큼 향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'라고 밝힘

섣부른 예측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중요

현 시점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. 그보다는 각 상황을 가정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중요. CJ헬로 인수 추진이 사실일 경우 양사는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, 주가 측면에서도 모두 긍정적이라는 판단. 다만,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반발이 예상됨

CJ헬로를 인수할 경우 LG유플러스는 유·무선 점유율 동시 상승 가능

인수가 성사될 경우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료방송 5위(M/S 10.4%) 사업자에서 SK브로드밴드를 제치고 단숨에 2위(M/S 23.7%) 사업자로 올라설 수 있으며, CJ헬로 가입자 중 경쟁사의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결합으로 끌어 무선 점유율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. CJ헬로 입장에서도 케이블 TV 가입자당 가치가 100만원(2007년 MBK의 씨앤앰 인수 당시)에서 45만원(2016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 당시), 그리고 다시 25만원(2016년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 당시)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기업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정지수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